



한국 탁구 국가대표팀 임종훈(오른쪽)과 신유빈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왕춘팅-두호이퀸 조를 꺾고 동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유도 국가대표팀 이준환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상 드 마르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남자 -81kg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티아스 카스를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건 뒤 시상대에 올라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탁구·유도, 값진 동메달... 배드민턴 女 복식 동반 8강

임종훈-신유빈, 12년만의 메달
이준환, 연장 접전 끝 절반승
김소영-공희용, 3전 전승 1위
백하나-이소희, 2승 1패 조 2위
화순군청 복싱 임애지 8강 진출

2024 파리 올림픽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공식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태극전사들이 열린 나흘 째인 지난달 30일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배드민턴과 양궁, 복싱 등 종목에서도 메달 사냥을 위해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탁구의 임종훈(한국겨레소)과 신유빈(대한항공)은 구릿빛 스매싱을 날렸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 혼합 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왕춘팅-두호이퀸(이상 홍콩) 조를 4-0(11-5, 11-7, 11-7, 14-12)으로 완파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앞서 16강에서 당치우-미텔함 니나(이상 독일) 조, 8강에서 오비디우 이오네스쿠-베르나데트 쇠츠(·이상 루마니아) 조를 4-0으로 연파했으나 준결승에서 왕춘팅-쑤인사(·이상 중국) 조에 2-4로 석패했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 임종훈-신유빈 조는 1게임부터 3게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했고, 4게임에서 세 차례 듀스 끝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들은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12년만의 탁구 메달을 합작했다.

특히 신유빈은 여자 선수로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의 메달 주인공이 됐다.

유도의 이준환(용인대)은 구릿빛 허리기에 성공했다. 이준환은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상 드 마르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 유도 남자 -81kg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티아스 카스(벨기에)와 연장 접전 끝에 발뒤축허리기로 절반승을 따냈다.

이준환은 앞서 32강에서 아츠라프 무

티(모로코)에 절반승, 16강에서 사기 무키(이스라엘)에 한판승, 8강에서 샤흐피딘 불타보예프(우즈베키스탄)에 한판승을 거두며 순항했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타토 그리갈라쉬빌리(조지아)에게 연장 끝에 안오금피기를 허용하며 절반패를 당해 동메달 결정전으로 향했고,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 도전을 노리게 됐다.

배드민턴에서는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 조와 백하나(MG 새마을금고)-이소희(인천국제공항) 조가 나란히 8강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에서 한국 선수단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대진으로 8강은 다음달 1일 오전 시작된다.

김소영-공희용 조는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펜에서 열린 이번 대회 배드민턴 여자 복식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마츠야마 나미-시다 하루(이상 일본) 조를 2-0(24-22, 26-24)으로 꺾고 3전 전승, 조 1위를 확정지

었다. 이어 백하나-이소희 조는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종골판 키티타라쿨-리윈다 프라종자이(이상 태국) 조를 2-0(21-9, 21-12)으로 완파하고 2승 1패, 조 2위에 올랐다.

양궁의 김우진(청주시청)은 16강에 안착했다. 김우진은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앙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양궁 남자 단식 64강에서 이스라엘 마다예(차드)를 6-0(29-26, 29-15, 30-25), 32강에서 린쯔샹(대만)을 6-0(30-27, 29-28, 30-26)으로 연파했다.

복싱의 임애지(화순군청)도 8강에 올랐다. 임애지는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 복싱 여자 54kg급(플라이급) 16강에서 타티아나 레지나 드 헤수스 사가스(브라질)를 상대로 4-1 판정승을 거뒀다.

펜싱 에페 단체전에 나선 최인정(계룡시청)과 강영미(광주 서구청), 이해인(강원도청), 송세라(부산시청)은 노메달의 아쉬움 속에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국

은 지난달 30일 오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열린 이번 대회 펜싱 에페 여자 단체전 8강에서 프랑스에 31-37로 무릎을 꿇었다.

8강에서 탈락하며 5-8위 결정전으로 향한 한국은 미국을 45-39로 꺾고 5-6위 결정전에 진출했고, 우크라이나를 45-38로 물리치며 5위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뒀다.

수영 접영에 출전한 여수 출신 김민섭(독도스포츠타운)은 비록 결승 진출은 좌절됐으나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썼다. 김민섭은 같은날 오후 프랑스 파리 라 데팡스 아레나에서 열린 이번 대회 수영 경영 남자 접영 200m 준결승 2조에서 1분55초22로 터치 패드를 찍었다.

준결승은 2개 조의 기록을 합산해 상위 8명에게 결승 티켓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김민섭은 전체 13위를 기록해 대회를 마치게 됐다. 다만 김민섭은 한국 남자 수영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서 접영 예선을 통과한 주인공이 됐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송원대 세팍타크로, 시·도대항 더블이벤트 우승

결승서 중부대 2-0 제압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이 2024 시·도대항 세팍타크로대회 남대부 더블이벤트 우승을 차지했다.

송원대는 지난달 20일 대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대부 더블이벤트 결승전에서 중부대를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성훈(태공·3년)·우정호(피더·3년)·천지민(킬러·2년)·최도연(킬러·1년)으로 구성된 송원대는 1세트를 접전 끝에 15-13 승리를 거둔 뒤 여세를 몰아 2세트에서도 15-12로 물리치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레규이벤트 경기에서는 동메달을 획

득했다.

송원대는 조별리그에서 1승(경희대 2-0승) 1패(동신대 0-2패)를 기록, 조 2위로 준결승에 올랐으나 22일 준결승서 원광대에 0-2(0-15 12-15)로 석패했다.

지난 2022년 창단 이후 세팍타크로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송원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정호(피더)와 김성훈(태공)이 U-21 태극마크를 달며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송원대는 오는 10월 제105회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재 송원대 부장 교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기량 확보를 위해 훈련중인 선수, 코치께 감사하다”며 “광주시체육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태 송원대학교 총장은 “송원대학교 브랜드 가치를 높인 세팍타크로 학생선수들의 대회 우승을 축하하며, 앞으로 부상없이 선전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파리에 불어오는 K 열풍... 한국체육 경쟁력도 높아지길”



벌써 파리올림픽 대회의 참관단으로 활동한지 일주일째가 됐다.

현지시간 30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함께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외교의 장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곳에는 K-스포츠(대한체육회), K-컨텐츠(CJ, 포토이즘,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K-푸드(비비고, 카스, 코카콜라), K-아트(문체부 전통문화과, 한국도자재단), K-콘서트(국립발레단)를 통해 전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장에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다.

25일 개관한 코리아하우스는 벌써 개관 3일 만에 54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인기는 선수들의 경기만큼 뜨거웠다.

내부에는 한국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인 네컷 사진과 팀코리아 굿즈샵, 올리브영, 스튜디오 드래곤, 마마 등 한국 K-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부스존들이 마련돼 있었다.

부스에선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욱 좋아하면서 서로 사진찍기에 한창이었다. 그리고 국립발레단이 선보인 스페셜 갈라 공연은 발레의 고장인 파리에서 관객 모두를 홀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무대였다. 나도 공연이 끝난 후 자연스레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였다.

공연이 끝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야외에 마련된 K-푸드 비비고 부스를 찾았다. 김치만두, 떡볶이, 김밥, 불고기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팔고 있었는데, 맥주 한잔과 함께 오랜만에 먹어본 김밥에 떡볶이는 동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잔 곁들이는 그 맛이였다.

허기를 해소한 뒤 본연의 역할인 응원

을 위해 펜싱경기장인 그랑팔레를 방문했다. 어제 최세민(전남도청) 선수가 여자 사브르 준결승과 동메달결정전에서 석패해 아쉬운 결과가 있었기에 큰 힘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여자 에페 단체전 8강전에 송세라, 강영미, 이해인, 최인정 선수가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펜싱종주국인 프랑스에 발목을 잡히며 아쉬운 5-8위전을 치렀다.

그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연파하며 최종 순위 5위의 값진 결과를 획득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오늘 코리아하우스 방문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보여줬다. 우리 선수들이 이곳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연일 ‘코리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체육이 하나된 새바람으로 한국체육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스포츠의 위대함을 절감한 하루였다.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